



전남 해남·강진·완도·진도

茶, 바다 그리고 고찰... 생활불교의 터전

해남·강진

지역과 불교. 여기에는 많은 함수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공통분모는 역시 '생활'이다. 생활 속에 불교가 얼마나 녹아있느냐가 관건이다.

시대흐름 속에 강·약이 반복되는 가운데 오늘의 해남, 강진불교는 젊고 힘있는 불교라 할만하다.

해남, 강진 불교대학을 나오지 않고서는 지역에서 한소리 하기 어렵다. 지자체 단체장이 대부분 지역 사암의 신도회장 출신인 것만 보아도 불교계의 역할을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10여년 전만해도 이 지역에서 불교는 외면당했다. 종단분규로 인해 지역민들이 불교를 등졌기 때문이다.

해남불교는 1994년 천운 스님이 대흥사에 주석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95년 해남읍내에 대흥사 불교회관을 건립하고 한들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포교에 나섰다. 곧이어 해남불교대학을 개설해 그동안 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방학특강에는 선지식은 물론 황석영, 김지하, 조정래 등 당대 최고의 명사를 초청했다. 서산대사 탄신대제에 초·중·고 백일장을 개최해 매년 700여명의 학생이 대흥사를 주제로 글을 쓰도록 했다. 이렇게 4~5년간의 수습기를 거친 후 2000년대에 들어서 교구신도회, 경찰서 범우회, 군청 공무원불자회(수선회) 등 직장직능 불교단체를 결성하면서 제2의 도약기에 들어섰다.

2000년부터 시작된 '대흥사 새벽숲길'은 주말수련회의 대명사가 됐고, 미항사의 한문학당, 작은음악회, 폐불제 등은 전국 각 사암에서 벤치마킹해 전국적인 포교 프로그램으로 보급되고 있다.

또한 해남불교에서 차(茶)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차의 성지로 일컬어지는 일지암을 중심으로 다양한 다인들의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 일지암주 여연 스님은 초창기 다인회를 결성해 전통차 강의와 보급에 앞장섰다. 특히 여연 스님을 주축으로 지역 젊은 이들이 모인 남천다회는 직접 자생차 단지를 조성



2000년부터 시작된 해남 대흥사 '새벽숲길'은 산사와 주5일 근무제를 결합한 주말수련회의 대명사가 됐다.

해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다.

강진 역시 불자뿐 아니라 지역 기관장 대부분이 강진불교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이다. 룸비니 어린이집, 군청, 경찰서 불자회는 물론 상가변영 불자회, 신도연합회, 포교사회 등 각종 실행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백련사, 무위사, 고성사 등 한국불교의 맥을 이어온 대가람과 대한불교선각종, 세계불교미술총본산이 자리해있어 지역불교를 더욱 힘있게 한다.

지난 2000년 호남을 중심으로 장중한 선각종은 전국에 318개의 말사가 있으며 종단차원으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소외이웃을 위한 봉사과 군부대, 교도소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완도·진도

육지에 비해 교세가 약한 섬 사찰은 대부분

- 해남 대흥사불교회관·새벽숲길 포교 발판
- 강진 가는곳마다 불교신행회 활기 넘쳐
- 완도 신흥사 중심 10여개 섬 불자들 뭉쳐
- 진도 쌍계사 국화축제·향적사 청년불교 눈길



땅끝마을을 미행사는 한문학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사찰로 자리잡았다.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변화'와 '발전'의 주역

몽산 스님 (해남 대흥사 주지·해남불교사암련회장)

"지역불교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세 개의 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몽산 스님의 신념이다.



'화안어(和顔愛語)'를 강조하며 교구본사 주지라는 바쁜 일정 가운데도 포교라면 어느 곳이든 직접 차를 들고 달려간다.

'발상을 바꿔야 지역불교도 산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불교대학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해남불교대학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교리강좌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다도전문반, 자원봉사와 정 등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제는 포교방향을 자연부락으로 돌려야한다"는 스님은 공격적 포교를 모색하고 있다.

일년이면 50여차례 수련회가 열리는 수련시설을 지역사회단체에 연수회 등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흥사에서는 포교, 수련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인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3천불·3천탑 조성 봉사

정암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강진 출현사 주지)

선각종 총본산 출현사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종단을 이끌고 있는 정암 스님은 평생 출현지역 불교와 함께 하고 있다. 삼체가 정토세계 이기를 발원하며 '3천불, 3천탑' 조성봉사를 펼치고 있는 출현사는 현재 1200여기의 각종 탑이 즐비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승속을 떠나 사부대중이 함께 정진하는 열린선방, 강원을 건립중이다.



전국에 산재한 선각종 산하 사암들의 발전을 위해 노심조사하는 스님은 종단차원으로 매년 심장병돕기 수습비를 지원해 그동안 6명의 환우를 쾌유케 했다.

부처님 천년과 마음 정화, 신심을 돕는데 찬불가만 한 포교가 없다고 주장하는 스님은 금년 봄에 선각총림합창단을 창단해 지역 사암을 찾아가

잔불가를 보급할 계획이다.

범 종단차원의 자비 실천행을 위해 오는 3월부터는 '사랑의 연탄 10만장 모으기 운동'을 펼쳐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누가 뭐래도 '진도 스님'

법일 스님 (진도 향적사 주지)

법일 스님은 진도에서 태어나, 진도에서 출가해, 진도에서 수행 포교하는 그대로가 '진도 스님'이다. 일찍이 포교에 원력을 세운 스님은 1981년 지산중학교 교사와 지산면 불교화생회를 결성했다. 면단위 불교화생회는 처음이었다. 82년 진도불교청년회, 85년 고등부 불교학생회, 89년 향적사 어린이회를 출범시켜 지도해 오고 있다.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목요법회 경전강의도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지역 포교에 있어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다. 이러한 스님의 우직함은 교도소 법회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1985년 시작한 장흥교도소 법회를 지금까지 25년째 이어오고 있다.

불교화생회에 애착을 갖고 있는 스님은 지난해부터 진도중학교 특별활동시간에 불교동아리방교사가 되어 지도하고 있다.

국화 향기로 전문업 열어

진현 스님 (진도 쌍계사 주지)

출가 후 25년가량 전국 기도처에서 기도정진하던 진현 스님이 쌍계사 주지를 맡아 포교일선으로 나와 느낀 것은 '포교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쉽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스님은 진도불교 포교 코드를 '국화꽃'으로 정했다.



국화는 한 종류로 수백 가지를 표현해 낼 수 있으므로 다양한 모습의 불교를 접목시킬 수 있어 제격이다. 더구나 출가 전 스님의 전공이 원예에서 누구보다 자신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진도민요가 곁들여진 '국화축

제'를 펼쳤다. 대성공이었다. 흥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1달간 펼쳐진 국화축제에는 진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단번에 진도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트가 되었다.

지난해 시작한 다도교실은 보현다인회로 거듭나 실행단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지부임 3년째를 맞는 금년에는 학생회, 청년회, 신도회를 결성해 지역 봉사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문화로 지역민과 호흡

법일 스님 (완도 신흥사 주지)

완도에서 큰절로 불리는 신흥사는 규모는 작아도 완도불교를 대표한다. 그렇지만 1999년 법일 스님이 완도에 왔을 때만해도 불교가 있는 듯 없는 듯 미미했다. 120평 규모의 교육관(하심당)을 세워 교육부터 시작했다. 1층에 도예공방을 마련해 매주 수요일 생활도자기 강좌를 열고 있다. 문화시설이 없는 완도에서 공방은 급증하는 문화욕구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완도읍내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3층 교육장에서는 여름수련회를 비롯해 어린이 한문학당을 8회째 개최했다. 한문학당 출신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린이법회에 이어졌고, 금년 봄에는 중등부 학생회를 창립할 예정이다. 더구나 아이들을 따라 부모들도 사찰을 찾으면서 완도불교가 활기를 띠고 있다.

"건강하고 올바른 불교가 생명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2003년 시민단체를 결집해 민주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다.

문화재 사랑 심기 분주

중평 스님 (강진 무위사 주지)

한국불교미술의 보고인 무위사는 국립공원 내에 자리한 국보소유의 사찰 가운데 입장료를 받지 않는 유일한 사찰이다. '신도가 주인이고, 누구든 편하게 찾아야 할 공간에 입장료가 웬 말이나'며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스님의 의지다.

'성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참배객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 포교이자 수행이다'는 것이다. 무위사 법당자제가 갖바집으로 위압적이지 않고 서민풍이어서 입구에서부터의 편안한 마음은 법당까지 계속된다. 더구나 몇 년 전부터 무위사 뒤쪽으로 생태숲길이 조성되어 자연과 함께하는 편한 세계가 이어진다. 특히 생태숲길 초입에 마련된 야생화 단지는 한국의 야생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사찰에서 흥미를 붙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생태학습장이 되고 있다.

금년 중으로 백화보존관에 소장중인 불화 보존을 위한 성보박물관이 완공되면 참배객을 대상으로 하는 좀더 체계적인 포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행·체험행사 기획 '성공'

금강 스님 (해남 미행사 주지)

불교계 주요 벤치마킹 사찰인 미행사. 그 중심에 금강 스님이 있다. 2000년부터 시작한 어린이 한문학당, 산사음악회, 폐불제에 이어 이번 겨울방학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학교를 개설했다. 모두가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새로운 개념의 포교이자 수행이다. 더구나 땅끝 해남의 산중사찰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이 이제는 완성단계에 이르러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스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 수행센터'로 산중사찰의 모델을 세우는 것.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되면서 일반인의 참여가 늘고 있어 집중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목할 예정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수행은 8일간의 단기출가도 격월로 진행된다.

8일이란 기간은 주 5일근무제 등 사회변화와 그동안 수련회를 통해 얻은 결론으로 수행효과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기간으로 보고 있다.

'결사' 정신으로 열린불교 구현

법상 스님 (강진 백련사 주지)

백련사는 강진불교대학, 룸비니어린이집 등 강진에서 유일하게 불교 교육기관을 개설해 운영하

한문학당, 장보고학교 등을 운영하며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주력하는 한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예공방, 다도모임을 운영하면서 불교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불교계가 나서 지역 성직자들과 시민단체들을 결집해 군정감사, 지역문제 해결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섬으로 이뤄진 진도는 쌍계사, 향적사, 용장사 등이 주축되어 지역불교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 쌍계사와 향적사는 포교에 있어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천년고찰 쌍계사는 찾아오는 참배객들을 대상으로 포교에 임하고, 향적사는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포교전략을 펴고 있다. 쌍계사는 국화축제를 위해 화반 1000개에 모종준비를 마쳤고, 향적사는 학생회, 청년회 등 약해진 실행단체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해남·강진·완도·진도=이준영 기자



고 있다. 법상 스님은 그 기관들을 백련사가 운영한다기보다 지역불교계가 함께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스님이 추구하는 지역 포교의 근간이다. 민중불교 운동의 발상지인 백련사 결사의 뜻이기도 하다.

사찰도 강진군민은 물론 누구나 부담없이 쉬었다 가는 도량을 추구한다. 권위적이고 의식화된 불교보다 편한 불교, 이웃 같은 불교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경내에 있는 동백산을 개방하고, 3월부터 지역민들의 문화축제를 위해 야외 주말극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다도회를 중심으로 야생차 발에서 직접 차 잎을 따고, 제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 발효차를 개발해 시음중이다.

수행 정진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는 스님은 2002년부터 선방 무문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명의 수좌가 정진중이다.

농촌 사찰에서 소박한 포교

자항 스님 (해남 광보사 주지)

자항 스님의 포교공간인 광보사는 논길과 밭길이 교차하는 전형적인 농촌사찰이다. 스님은 "자연경관이 웅장한 산중사찰도, 문화재가 많은 관광지 사찰도 아니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찾는 이도 없다"고 판단. 지역민들이 사찰을 찾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참선, 요가, 명상, 다도체계를 매개로 연중 작은 수련회를 개최하고, 방학 때 어린이를 대상으로 집중수련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가을엔 한해 농사에 지친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제는 사찰이 서서히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스님은 또한 교회, 성당과의 교류를 통해 종교연합을 도모하고, 이웃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좀더 지역민과 친밀한 사찰이 되도록 하기위해 예배기도, 수련정진, 생활복지 공간으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도량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